



## 정통부 진대제 장관과 벤처기업인 간담회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은 1월 28일 정통부 15층 회의실에서 벤처기업협회 장흥순 회장과 조현정 차기 공동회장(비트컴퓨터 대표), 변대규 부회장(휴맥스 대표)등 벤처기업협회 회장단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진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는 2007년까지 100만개 중소기업의 정보화 작업을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올해 50만개 중소기업에 대해 정보화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진장관은 "지난 1999년 '벤처 붐' 당시의 무차별적인 자금지원을 지양하는 대신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 지원하는 형태로 정부정책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협회 회장단은 소프트웨어 부문 교육지원 및 시험인증장비 등의 분야에서 정부의 지원을 한층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재래시장 이용촉진 캠페인 참여

협회 회장단은 설을 맞이하여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2월 4일 서울 중앙시장에서 실시된 '재래시장 이용촉진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석한 중소기업청 김성진 청장은 협회 장흥순 회장, 조현정 차기 공동회장, 김태희 부회장 및 유관기관 단체장들과 함께 시장내에서 시장바구니를 배포하고, 시장점포에서 설 선물을 직접 구매하는 등 재래시장상인을 격려하고 재래시장 이용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 협회 장흥순 회장은 2월 10일 KBS뉴스라인에 초청되어 '벤처기업 거품에서 내실로'라는 주제로 기획대담을 가졌다. 장회장은 대담에서 정부의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평가하고 신성장동력으로서 벤처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 인케코퍼레이션(대표 전하진)은 2월 4일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17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 인케코퍼레이션은 벤처기업들의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과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